

석사학위 논문

『벽허담관제언록』의 속이기 양상과 의미

유인선

2011년 8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병설 선생님

본고는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 『벽허담관제언록』에 나타난 속이기의 양상을 분석하여, 속이기가 작품에서 지니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벽허담관제언록』은 속이기를 통해 주인공들의 혼사장애와 여성 인물들의 활약 등 한글장편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벽허담관제언록』에 나타난 속이기 양상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II장에서는 속이기가 나타나는 장면을 살핀 후, 각 인물들이 상대를 속이는 의도에 따라 속이기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속이기는 각각 ‘애욕추구형’과 ‘위기모면형/구조형’, ‘유희형’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애욕추구형 속이기는 주인공들의 혼사장애 장면에서 발견되며 작품 전개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이 유형에서 악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인공들의 결연을 방해하며, ‘신분위장’이나 ‘가장극’, ‘문서위조’ 등을 통해 다른 인물들을 곤경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모해형 속이기의 성격을 지닌다.

위기모면형/구조형 속이기는 여성 인물들의 지혜와 개성을 부각시킨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위기모면형 속이기는 곤경에 빠진 여성 인물이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물로 ‘대체’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구조형 속이기는 주변 여성들이 가장극을 벌여 곤경

에 빠진 이를 구해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유희형 속이기는 등장인물들이 단순히 웃고 즐기며 유희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는 데 주목적을 둔 속이기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작품에서 갈등이 가장 심각한 국면에 배치되어 작품의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속이기의 효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속이기의 효과는 크게 ‘서사적 긴장의 지속’, ‘여성 인물의 부각’, ‘욕망에 대한 경계’라는 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서사적 긴장의 지속과 관련하여 『벽허담관제언록』은 각각의 결연담이 중첩되어 진행되는 가운데, 속이기가 갈등을 고조시키거나 완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속이기는 각각의 결연담에서 갈등의 완급을 조절하며 작품 전반의 서사적 긴장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또한 『벽허담관제언록』은 여성 인물들이 속이기의 주체로 부상한 모습을 보여주며, 각 여성 인물의 개성을 생생하게 포착한다. 욕망에 대한 경계와 관련하여, 상대를 속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패륜을 범하는 악인들은 다시 상대방의 속임수로 인해 죄상이 드러나 철저히 징치된다. 이처럼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 상대를 속이고 해치는 자가 파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나친 욕망에 대해 경계하는 시각을 볼 수 있다.

IV장에서는 조선후기 장편소설에 나타난 속이기 양상과 소설 향유층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소현성록』과 『유씨삼대록』, 『현씨양옹쌍린기』, 『하진양문록』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각 작품에 나타난 속이기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벽허담관제언록』은 동시대에 향유된 작품들의 속이기 양상 전반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며, 속이기를 통한 사건 구성과 인물 제시의 측면에서 독자성을 지닐 수 있었다. 또한 소설 향유층과 관련하여 작품의 주요 사건들이 여성들의 속이기를 통해 진행되므로 여성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속이기는 여성 독자들이 기대하는 소설의 ‘오락적 측면’과 ‘일탈적 측면’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요컨대 속이기는 작품을 이해하는 주요한 틀로 기능하며, 작품에 대한 해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벽허담관제언록』 외에 다른 작품들에서도 다양한 속이기 양상이 발견되므로, 이를 당대의 사회문화와 관련지어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리라 본다.